



스마트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주요국에서는 정부주도로 복잡한 정보와 데이터를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정보공시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변형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선택엔진의 개발을 촉진함. 국내 금융 분야에서도 소비자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의 협력, 선택엔진이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의 데이터 집적, 정보보안 관련 조치 등과 같은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주요국의 정보공개정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

● 미국 오바마 정부의 Open Government와 영국 카메론 연립정부의 투명성 및 데이터 공개 관련 노력은 정부 보유정보 공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¹⁾

■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는 복잡한 정보를 소비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는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또는 midata라는 전자공시체계를 도입함.²⁾

● 소비자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RECAP(Record, Evaluate, and Compare Alternative Prices)이라는 전자공시체계가 제안된 바 있음.³⁾

● 미국 정부는 스마트공시, 영국정부는 midata라는 이름으로 RECAP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스마트공시는 정보의 조직화, 단순화, 지수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검색과 의사결정을 돕는 선택엔진(choice engine)의 개발을 촉진함.

1) 이 밖에도 EU의 Open Data Strategy(2011), 호주의 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2009) 등이 있음.

2) 스마트공시는 에너지, 교육, 금융, 통신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https://www.data.gov/consumer/smart-disclosure-policy> 참조.

3) Thaler and Sunstein(2009),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Penguin Books.

- 선택엔진이란 소비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정보들을 종합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변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음.⁴⁾
- 금융분야에 적용된 선택엔진의 사례로는 미국 BrightScope와 영국의 Gocompare.com이 있음.⁵⁾
 - BrightScope는 401(k) plan을 분석하여 각 상품의 점수를 산출, 펀드의 순위 분포를 제공하여 상품비교를 돕는 서비스임.
 - Gocompare.com은 소비자의 실제 거래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하여 제시하며, 특정 상품으로 이동할 때의 금전적 혜택 또는 비용을 추정하여 제공함.

■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시가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정부, 금융회사,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선택엔진 개발자 간의 공조가 필요할 것임.
- 선택엔진이 상품 계약조건, 서비스 이용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집계되어야 할 것임.
 - 미국 SEC는 2009년부터 기업, 뮤추얼 펀드, 신용등급회사들이 정보를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형태로 보고하도록 함.
- 또한, 정보보안에 관련된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비자정보를 암호화하여 필요한 분석에 사용한 후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는 Gocompare.com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정보를 적절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 공시를 위해 스마트공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유 데이터의 공유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공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⁶⁾
- 이를 위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 집적, 정보보안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선택엔진 개발자들이 스마트공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장애요인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kiri**

4) Thaler and Tucker(2013, 1~2), "Smarter Information, Smarter Consumers", *Harvard Business Review*.

5) <https://www.brightscope.com/> 및 <http://www.gocompare.com/money/midata/>.

6) 정부3.0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